

『2017 디자인공예문화산업활성화 국내박람회 추진사업』

대행사 선정심사 회의록

일시 : 2017.03.30(목) 14:00~16:00

장소 :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살림터 2층 미디어룸

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가 주제이긴 하나 건축을 매개체로 하여 공예품을 보여지는 박람회임으로 총감독을 건축가가 아닌 공예가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- 작년에 공예박람회에서 식을 주제로 하였을 때 '수요미식회' 칼럼니스트를 총감독으로 영입했듯이 이번에도 정해진 것을 아니나 공예를 아우를 수 있는 건축가로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며, 변경이 가능하고 추천 시 변경이 가능함. - 전체 레이아웃을 미리 제안하셨는데 총감독이 선정 되면 전체적으로도 변경이 될 수 있음을 감안 하셔야 하겠음 - 제안서에서의 재해석을 통해 제안을 하였던 것이며, 총감독이 선정이 되면 총감독과 재단과의 의도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음. - 어떻게 보면 공예가의 프로모션의 자리도 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음 - 최초 기획 의도에 그런것도 있었으나 이것은 이후 총감독이나 주최측과의 협의를 통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노력 할 것임
B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예가와 디자이너는 구분이 됩니다.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함. 이부분에 대 부족해 보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의문. - 비전문가가 알 수 없는 상황이며, 올해 서울국제건축비엔날레의 공유도시와 주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봤음. 말씀하신대로 공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는 논할 수 없는 자리이기에 공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은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대행업체에서 잘 할 수 있는 전시 설치 방향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발표하였음. -공예를 돋보이기 위한 박람회이므로 공예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중점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면 좋겠음